



# 손에 잡히는 윤리

4월 「확장되는 부패」 편





# 여러분께 새로운 윤리경영 브랜드 **W.I.N.K.**를 소개합니다

우리는 청렴해! 다함께 **W.I.N.K.**해!

**W**orld Class(세계 최상급 전문성) **I**nteraction(소통)

**N**o corruption(부패 제로) **K**indness(존중)

- 현장 끝단까지, 동료의 마음까지, 준공 이후까지 -



윤리경영에서  
**전문성, 소통, 존중**을 다룬 것이  
다소 의아하신가요?

윤리경영과 멀어 보이는 가치들이  
브랜드에 반영된 이유는  
**부패의 범위가 점차 넓어**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



일반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인사 청탁을 하는 등  
심각한 일탈 행위만을 부패라고 여깁니다.

그러나 최근에는 소극적 업무행태로  
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 
국가 재정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 
**소극행정도 부패의 일종으로 인식**하고 있습니다.



**조직 내 갈등과 소통의 부재** 역시 부패로 파악됩니다.  
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도를 낮추는  
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.

**조직 내 신뢰 회복은**  
우리 공단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 
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기도 합니다.



평소 '나는 부패와 멀리 있다'고 생각하셨다면  
앞으로는 '부패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'고  
생각을 바꿔 주세요.

부패의 개념이 넓어짐에 따라  
부패는 더 이상 덮어두고 홍보는 '남'의 일이 아닌  
늘 고민하고 경계해야 할 '**나**'의 일이 되었습니다.